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어촌개발사업 기술 이전 및 Know-How 공유회 개최

윤 김중윤 기자 | 승인 2025.04.16 13:04

현장 중심의 창의적·실용적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품질 제고 도모



제1회 경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Know-How 공유회 단체사진/농공경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1회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Know-How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지역개발 사업별 우수사례 발표 및 기술 Know-How 공유”를 주제로 경남 도내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 수행기관

의 우수 수행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기술적 해결방안을 담은 우수 수행사례는 사례의 적정성, 창의성, 적용성, 활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 중심의 접근과 혁신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최종 5건 선정되었다.

최종 우수사례는 공유회 당일 주제별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현대이앤시 “축산보상(폐업) 단가산정 기준과 보상금액 산출방법” ▲(주)다온 “지속가능한 지역의 리빙랩 협의체 운영, ▲(주)엔브이 “기본계획-사업기간 간 간극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계획방안”, ▲(주)표영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소득개발방안” ▲(주)이노플랜 “추가사업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방안” 등이다.

손영식 본부장은 “이번 개최된 공유회에서는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실용적 접근이 돋보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실천 중심의 사례 공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향후에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실무자들과 협업을 통해 실행력 높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김종윤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윤 기자 기자

 인쇄